

보도 일시	2022. 7. 21.(목) 09:00	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 09:00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	책임자	과장 정원상 (044-203-2531)
		담당자	사무관 이창호 (044-203-2534)

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인식 확산과 추진 방향 논의 - 7. 21.~22. '제11회 국어책임관·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' 개최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(사)국어문화원연합회(회장 김미형)와 함께 7월 21일(목)부터 22일(금)까지 대전에서 '제11회 국어책임관·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'를 열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.

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 전국 국어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와 지역 국어문화원장 등이 참석한다.

공공언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*에 따르면 우리 국민 32.3%가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. 이에 이번 연수회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어를 효율적으로 진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▲ 국어책임관 활동 우수 사례 시상 및 발표, ▲ 국어문화원 사업 발전 방안 논의, ▲ 쉬운 우리말 사업 소개 등을 진행한다.

* 「공공언어 개선 정책효과 조사연구」 (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, 2021년)

아울러 2021년 국어책임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문체부장관* 및 국어원장 표창**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.

*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(문화상품권 100만 원): 교육부, 경기도청, 울산광역시 중구청, 울산광역시교육청

** 국립국어원장 표창(문화상품권 50만 원): 국토교통부, 세종특별자치시, 서울특별시 중구청,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이 중 교육부와 경기도청, 울산광역시 중구청, 울산광역시교육청,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자는 이야기마당(토크쇼) 형식으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.

- ▲ 교육부는 국어전문관 2명을 선발해 대국민 자료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감수했고,
- ▲ 경기도청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.
- ▲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한글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글도시계를 신설했으며,
- ▲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 사업 등을 진행했다,
- ▲ 국토교통부는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 사업 등을 추진했다.

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의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다. 작년 법 개정으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까지 의무 지정 범위를 확대해 현재 2,274명이 지정되어 있다. 국어문화원은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로서,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. 현재 전국 각 지역에 22개 기관이 있다.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은 공공언어와 국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.”라며, “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그동안 못 나눴던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해 지속적인 국어 발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